

## 사람을 이롭게 하는 숨과 같이 따뜻한 말을 하라.

利人之言 煖如綿絮 (이인지언)은 (난여면서)하고  
傷人之語 利如荊棘 (상인지어)는 (이여형극)하야  
一言半句 重值千金 (일언반구) (중치천금)이요  
一語傷人 痛如刀割 (일어상인)에 (통여도할)이니라.

(明心寶鑑 言語篇)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숨과 같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으니, 한마디 말은 엽전 천냥의 무게와 같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고통이 마치 살을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명심보감 언어편)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설이 되면 서로 헤어져 살던 일가친척들과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는 소중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처럼 만난 혈육 또는 이웃 사람을 격려하여 용기를 주기도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를 주어 혈육 간이 남보다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설 명절에 숨과 같이 따뜻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 되십시오.